

개항기 제 1차 수신사의 신문물 접촉양상과 근대화와의 관계 분석*

공 미 희**

■ 국문요약

본고는 개항 후 제 1차 수신사로 파견된 김기수의 견문황동 보고서인 『日東記遊』를 중심으로 김기수가 신문물을 접촉했을 때의 양상에 대해 4가지로 분류해 그것이 조선 근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일본은 수신사행을 맞아해 가능한 많은 문물을 볼 수 있도록 하여 근대화정책에 대한 성공을 인식시키고자 했다. 당시 수신사의 입장에서, 일본에 파견된 목적이 양국 간의 국교를 수호하는 것이기에 일본의 요구 및 의도대로 다 따라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견문활동에 있어서 김기수의 태도와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조선소 전학포기 등은 면저, 수신사의 역할과 임무면에서 아주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조선의 근대화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되었다. 두 번째로 김기수는 화륜선, 화륜차, 전신기, 가스등과 같은 근대문물을 직접 체험해 편리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해 인식 및 지식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선에 도입해 근대화에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세 번째로 조선을 지킬 수 있는 무국강병과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인식부족으로 일본국경 탐문에 허점이 드러났고, 이것은 이후 일본의 조선침략에 대한 지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의 한 단면을 나타냈다. 네 번째로는 조선에서 시행되던 주자학 및 명나라 의복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발해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즉, 어떤 제도나 사상을 도입할 경우에는 그 장단점을 구분하여 그 나라에 적합하게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7S1A6A3A010798699).

** 부경대학교 일본한국플러시사립단 연구교수.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어야 했었다.

이처럼, 수신사의 임무 수행과정에서 김기수는 일본으로부터 다양한 신문물의 견학 및 도입을 권유받았으며, 러시아 및 서양세력에 공동대응을 위한 아시아 연대론의 제안도 받았다. 김기수가 비록 그 당시 조선내부의 상황 및 수신사의 입장에서 권문을 썼다할지라도, 일본이 어떤 권략에서 그런 권유를 하였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고 또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민이 필요했었다. 그리고 우선 조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었음을 인식하고, 조선의 부국강병 및 근대화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서양의 과학기술 및 근대문물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수신사로서 현명한 처신이 필요했다.

【핵심어】 근대, 1차 수신사, 임동기유, 신문물 접촉, 부국강병, 근대화

I. 들어가며

현재 한국의 주변 국제정세는 개항 당시의 상황들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경제와 무력 등에서 막강한 강대국속에서 다양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의 밝은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과거 우리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그 답을 찾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덕주(2001: 129~209) 및 이현장(2010: 261~307)은 조선의 약한 국력의 원인을 제시하였다. 이덕주는 추가적으로 이완용, 유교 및 당쟁은 조선의 식민지화에 간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을 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조선이 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즉, 조선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식민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력을 키우지 못하는 과정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조선은 1876년에 강화도조약 체결로 개항을 하게 되었고, 일본은 1854년 미일화친조약을 기점으로 개국을 하였다. 일본의 근대과학에 대한 수용의 역사는 에도시대의 난학에서 시작되었고, 1860년에 막부가 미일수호통상 조약의 비준서 교환을 위해 万延元年遣米使節을 파견했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의 다양한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서양으로부터 부국강병의 방법을 도입해 자발적 근대화를 성공시켰으며 또한, 제국주의 국가로 변화하여 조선을 식민지화 하였다.(三枝博喜 외, 1962: 176-179)

조선도 1876년 2월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 정부의 조선에 대한 사절파견 요청으로 일본에 지식인과 관료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선이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지만 조선은 결국 식민지로 전락했다. 조선이 근대화에 실패하고 국력이 약해 식민지로 된 원인은 조선내부의 정치적 갈등 및 주변국들의 식민지와 정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덕주도 언급했듯이 국력을 키우지 못하는 과정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분석하는 것은 향후 국가발전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항 후 1차수신사로 파견된 김기수의 견문활동 보고서인 『日東記遊』를 중심으로 김기수가 신문물을 접촉했을 때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이 조선 근대화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국력의 근본이 되는 과학기술 및 근대화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日東記遊』는 1876년 2월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 정부의 조선에 대한 사절파견요청으로, 1차 수신사로 방문한 김기수가 1877년 2월에 황해도 상산(象山), 즉 곡산군수로 있을 때 작성한 견문록이다. 『日東記遊』는 총 4권으로 김기수가 도쿄에서 20일간 머무르면서도 일본인의 문명개화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김기수, 1989: 343-519)

『日東記遊』 제1권에는 일본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이 사희(事畧)·차견(差遣)·수송(隨率)·행구(行具)·상략(商略)·별리(別離)·음경(陰晴)·일숙(歇宿)·승선(乘船)·정박(停泊)·유관(留館)·행례(行禮) 등 12항목으로 정리되어 있다.

『日東記遊』 제2, 3권에서는 일본에서 여러 인물들과 교류하고 문물을

전문한 내용을 환상(玩賞)·결식(結識)·연음(燕飲)·문답(問答)·궁심(宮室)·성곽(城郭)·인물(人物)·속상(俗尙)·정법(政法)·규조(旗條)·학술(學術)·기예(技藝)·물산(物山) 등 13항목으로 분류하여 상세히 정리해 놓고 있다. 『日東記游』 4권은 귀국하여 별단을 올리기까지의 내용으로 문사(文事)·창수시(唱酬詩)·귀기(歸期)·환조(還朝) 등 4항목으로 되어 있다.

『日東記游』 전문내용 분석에 대한 연구로는 韓贊吳, 鄭浩濬, 하우봉, 현명철, 이효경 등을 들 수 있다. 韓贊吳(2006a, 2006b)는 『日東記游』가 근대적 제도과 분물에 대한 지식이 적었다고 기존연구자들이 평을 한 것에 대해 비평을 해, 김기수의 일본인식과 그 의의를 새롭게 분석했다. 즉, 조일연대에는 동조하지 않았다는 점, 부국강병정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지만 일본국가 제정의 풍부함과 강병함에 감탄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분병개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공미희, 2019: 321). 鄭浩濬(2010)은 김기수가 근대문물에 대한 호기심이 존재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또한 기계문명, 실식학교 및 서양음악 등과 같은 근대제도 및 신문물이 일본에 도입하게 된 배경과 특징을 분석했다. 그리고 김기수가 전문 중에 요코스카 조선소 견학을 기철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근대화를 위한 좋은 견학의 기회였으나 기회를 놓친 일이라고 사료된다. 하우봉(1999)은 수신사행의 구성과 전문활동에 관한 고찰을 통해 수신사행이 지닌 외교사절로서의 성격을 분석했고, 하우봉(2000)에서는 김기수가 물경탐색이라는 임무를 충실하게 달성했다고는 보기 힘들지만, 일본방문 후 일본관은 물론 세계경제와 개화정책 등의 사상적인 측면으로의 시사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명철(2017)은 수신사 일행의 외교사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사의 파견과정과 성격, 그리고 수신사의 활동에 대해 고찰했다. 이효경(2018)은 그동안 수신사 및 조사시절단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일본의 신문 자료를 통해, 조선 측 기록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전문의 실제 양상을 밝히고 이들 사절단을 바라보는 메이지 일본의 시선도 분석하였다.

이 이외에도 역사학계에서 수신사를 다룬 선행연구는 조항래(1969, 1978), 이정희(2011), 김신영(2017), 구지현(2017), 金允植(1974), 이효경(2017), 김태준(1991), 정용수(1991), 정훈식(2007), 田保橋壽(1940), 岩方久彦(2007)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으로, 선행연구를 통하여 제 1차 수신사의 파견성과와 건문화운동 및 인식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김기수가 근대적 제도와 문물에 대해 사견 지식이 미약했다는 관점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조선내부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양국 간의 국교를 수호한다는 목적 하에 수신사의 입장에서 수신은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김기수의 건문화운동을 조선의 근대화와 관련시켜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김기수가 특히 과학기술과 관련된 신문물을 접촉했을 때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이 조선 근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II. 제 1차 수신사의 전문일정

수신사(修信使)는 1876년 2월 朝日修好條約 체결협상의 과정에서 일본 측 파견에 대응하는 답례 및 일본 내의 실경조사를 위해 일본측 요청에 의해 조선에서 파견한 외교사절이다. 강화도 조약 체결 이전까지의 조선 통신사가 조선이 문물을 주는 입장이었다면 수신사는 조선이 문물을 받는 입장에서 고려한 이름이다. 제 1차 수신사의 파견기간은 1876년 양력 5월 22일~6월 28일까지였으며 행선지는 부산출발-시모노세키-고베-요코하마-도쿄-요코하마-고베-시모노세키-대마도-부산도착이었다. 김기수를 정사로 총 76명이 일본선박 고훘마루(高龍丸)에 승선했으며 주요 사령원은 현석운(玄普運), 현계순(玄濟舜), 고영희(高永喜), 이용숙(李容肅), 김용원(金鍾元), 박영선(朴永善), 안광묵(安光默) 등이다.

- 1) 근대화란 사권적인 의미로서, 기존의 농촌 중심의 사회에서 선진 공업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의 협의적 의미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 총체적으로 더욱 개선된 생활양식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의 광의적 의미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광의적 의미에 바탕을 두되 특히 무국감발을 위한 과학기술적 측면에서의 서구화에 초점을 둔다.
- 2) <https://ko.wikipedia.org/wiki/%EC%88%98%EC%8B%A0%EC%82%AC>(검색일: 2019년10월29일).